

## 한국광산업진흥회 2010 결산에 즈음하여...



조 규 중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회원사 및 광산업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가고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0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KAPID2020 비전을 선포하였으며, 회원사 지원사업으로 새로운 시장수요창출을 위해 자동차·조선·의료·에너지·환경·IT분야와의 융·복합 신산업모델발굴을 위한 조사·분석 및 세미나를 정례화 하고, 광산업 CEO 기술경영 전문교육 등을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 대상 국가보다 먼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미래시장트렌드를 파악함은 물론 지역별전략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과 신규시장창출 등 광산업체 지원전략을 확대·강화해 왔습니다.

아울러 해외마케팅 및 선도산업 마케팅·국제협력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광산업전시회 개최, 광산업 무역사절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전략적인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지원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광산업체의 실질적인 매출 증진 도모는 물론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에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외 수출 판로 개척에 앞장서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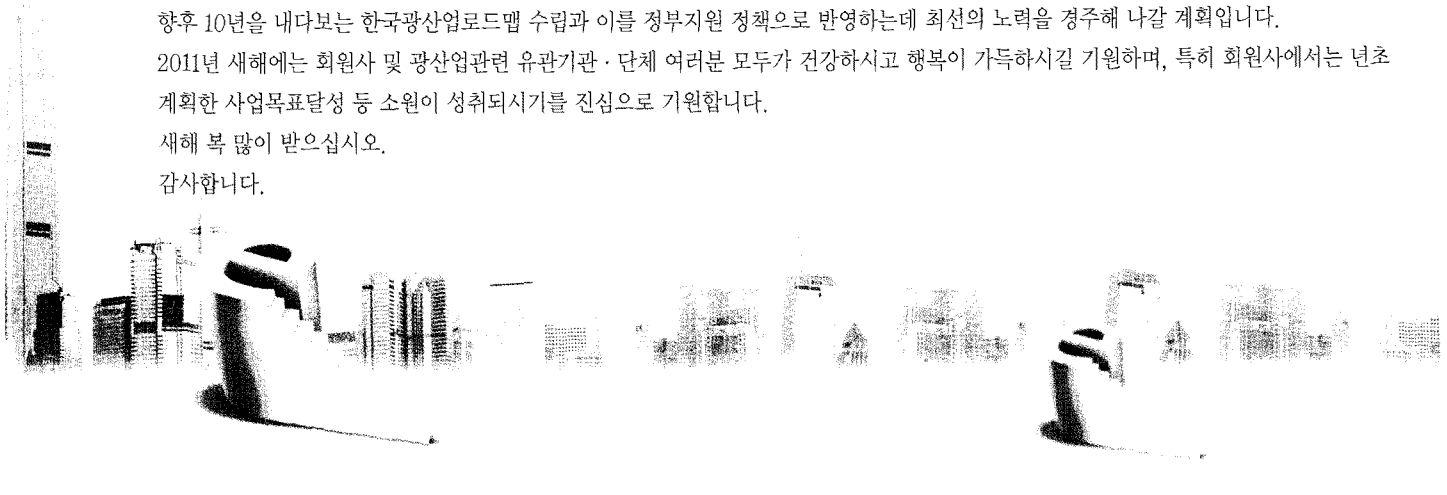
또한, 광정보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광산업체에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LED 조명 제품 보급 활성화와 수요창출을 위해 성능기준 확립을 위한 LED 조명 KS규격을 제안하여 제정하고 LED 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의 LED 보급 확대와 국산 LED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광산업공동브랜드(LUXKO) 인증지원을 통해 광통신 및 LED조명 제품의 국내의 홍보 뿐만 아니라 품질을 보증해 주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지정을 추진하여 광산업공동브랜드 인증제품의 실질적인 매출효과를 도모하는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밝아오는 2011년도에도 우리 한국광산업진흥회는 한국의 광산업이 세계 3대 광산업 선진국 진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한 광산업분야 전문가 Pool을 통한 정책자문 기능 및 광산업육성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광산업 융복합신산업발굴 및 사업화지원, 광통신 및 LED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공동 컨소시엄 구축,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 광산업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기반조성 등 사업범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한국광학회 등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020년까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한국광산업로드맵 수립과 이를 정부지원 정책으로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 새해에는 회원사 및 광산업관련 유관기관·단체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특히 회원사에서는 년초 계획한 사업목표달성 등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11

## 광산업체 CEO포부



**김국웅**  
우리로광통신(주) 대표이사 회장

### 우리로광통신(주)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에도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작년 한 해동안 변함없이 '우리로광통신(주)'에 보내주셨던 성원과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로광통신(주)'의 2010년은, 꾸준한 성장과 함께 광산업 신규영역 진입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주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해는 품질, 기술력을 더욱 향상시켜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Robot sensor 분야, APD 등 획기적인 신제품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로광통신(주)'은 광통신 업계의 젊은 기업으로서 세계 속에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심기일전의 자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훈**  
현대통신(주) 대표이사 회장

### 현대통신(주)

지속된 글로벌 경제침체의 여파 및 협소한 내수시장, LED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광산업은 그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LED 조명은 에너지 절감, 긴 수명 등의 강점을 가진 친환경 차세대 신광원이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 육성정책에 편승하여 저 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산업으로 고성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정책흐름에 발맞추어 광산업 기술의 발전과 영역확대를 위해 LED조명 자사브랜드 'WEET'를 출시하였으며, LED 조명 3대 핵심 요소인 방열, 렌즈, 디자인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허등록 4건, 의장등록 4건을 출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의 경쟁기업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신 기술이 적용된 폭넓은 제품 Line-Up을 구축하여 LED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현대통신(주)은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6년 연속 1위 수상의 자부심과 홈 네트워크 업계 1위로 다져온 축적된 통신/망 시스템, 기기 제어 및 각종 특화 솔루션을 LED와 접목하여 다양하고 첨단화된 LED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LED조명 분야에서 벗어나 Bio LED, System LED와 같은 차세대 신기술인

'LED IT' 부문에 집중적인 R&D투자를 하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 입니다.





유 영 호

화우테크놀로지(주) 대표이사

### 화우테크놀로지(주)

화우테크놀러지는 성공적인 2011년을 기원하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로 경영방침을 정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회사', '화합하는 회사', '평가 받는 회사' 라는 세부전략을 수립했습니다.

LED 조명 시장 확대가 가져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의 만족은 곧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화우테크놀러지는 시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요구, 즉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는 물론이고, 소비자가 화우 LED 조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적인 부분을 더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2011년에는 외부고객뿐 아니라 내부고객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내부고객의 만족이 궁극적으로는 외부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우테크놀러지의 직원 모두가 더욱더 화합할 수 있도록 가족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내외부 고객의 평가를 기업 발전의 디딤돌이여기고 충고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칭찬은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겠습니다.

화우테크놀러지의 2011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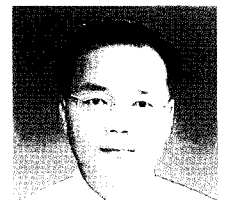
박 인 철

글로벌광통신(주) 대표이사

### 글로벌광통신(주)

글로벌광통신(주)는 광수동부품인 Fiber array와 Splitter를 상품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인력과 설비 그리고 공장 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으며, 작년 1월부터 보다 전략적인 신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 사업부와 독립된 광부품사업부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말부터 신규제품의 시장진입에 성공해 신사업 분야에서만 올해 300억원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 회사는 과학화 경비 시스템인 폼 시스템(FOM system)과 센서케이블과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온도변화 등을 측정하는 화재감시분야 등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온도분포 광센서 시스템(ODTS system) 등을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등 광 응용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광케이블 제품에 대한 기술력 향상과 신사업 분야의 제품 출시 등을 통해 올해에는 500억원, 2015년에는 1,000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비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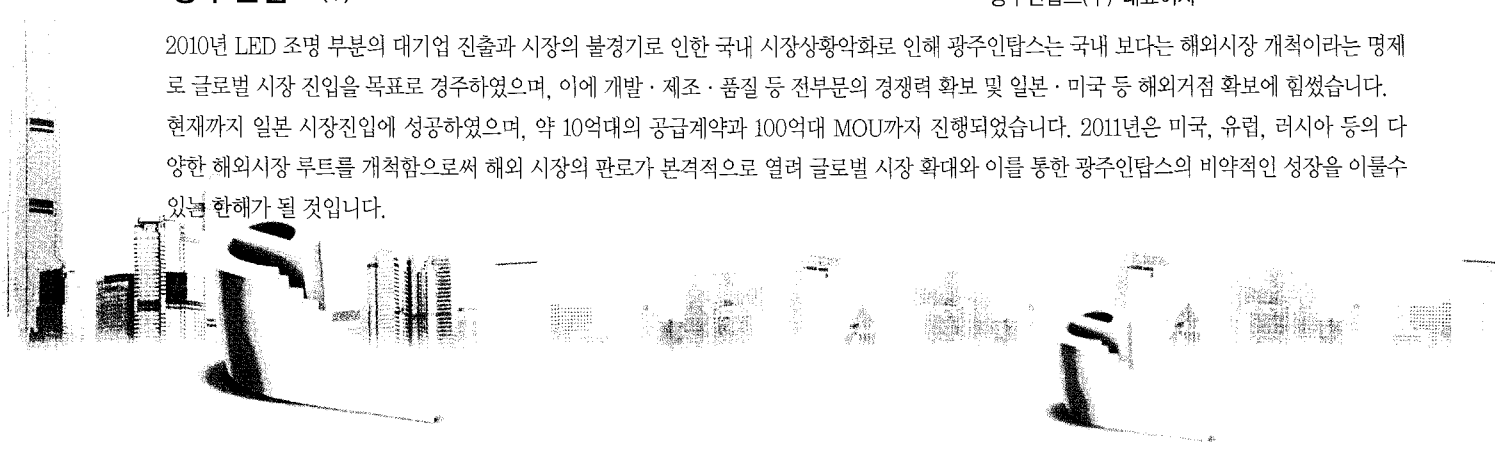
김 형 태

광주인탑스(주) 대표이사

### 광주인탑스(주)

2010년 LED 조명 부분의 대기업 진출과 시장의 불경기로 인한 국내 시장상황악화로 인해 광주인탑스는 국내 보다는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명제로 글로벌 시장 진입을 목표로 경주하였으며, 이에 개발·제조·품질 등 전부분의 경쟁력 확보 및 일본·미국 등 해외거점 확보에 힘썼습니다.

현재까지 일본 시장진입에 성공하였으며, 약 10억대의 공급계약과 100억대 MOU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은 미국, 유럽, 러시아 등의 다양한 해외시장 루트를 개척함으로써 해외 시장의 판로가 본격적으로 열려 글로벌 시장 확대와 이를 통한 광주인탑스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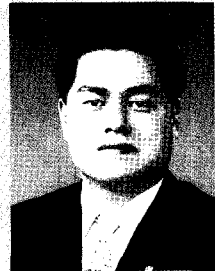




용 영 수  
(주)은하 대표이사

**㈜은하**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사들의 성장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은하는 16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렌지후드 시장의 M/S 확대는 물론 본격적인 수출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당사는 렌지후드에 LED를 결합한 보다 차별화된 모델을 개발하여 아시아권을 선 공략할 계획으로 최소 5개국에 진출하는 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LED를 다양하게 응용한 디자인으로 고객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에너지 효율 극대화의 장점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염공기 정화처리 시스템에 TiO<sub>2</sub>를 응용한 에너지 저 소비형이며 탈취기능을 겸비한 SR 필터의 개발로 주상복합 APT 및 대형건물, 지하철 역사 등의 공기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1억 년 전 지구상 공기의 용존산소비율은 29%에서 현재는 21%를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은하는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 요소인 공기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자연친화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공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제안 적극 부탁드립니다.



박 경 일  
케이엘텍(주) 대표이사

**케이엘텍(주)**

안녕하십니까? 항상 연구하는 자세와 새로운 개념의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케이엘텍(주)입니다. IT산업의 발전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활은 더욱 편리해 졌지만 더 많은 경쟁과 치열하게 펼쳐지는 세계시장 속에서 제품의 혁신과 소비자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져 있으며 또한 현대감각에 맞는 아름다운 외장과 고효율, 다기능 제품들의 요구는 언제나 저희 케이엘텍(주) 임직원들의 도전 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선 선진국 기술과 중국 등 저가품의 제품들과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만 하는 그 신념이 저희 케이엘텍(주)가 정진하는 원동력입니다. 저렴한 비용, 제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조명기구의 새로운 시장에서 케이엘텍(주) 제품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시공된 제품에 대해서는 만족과 철저한 사후관리 등 타사와 비교되는 기술로 소비자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케이엘텍(주)는 새로운 소재개발과 새로운 기능을 접목시킨 제품연구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